

감상의 즐거움

18 한국 미술의 여정

학습 목표 •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과 변천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.

김정희는 으그림을 언제 어떤 이유로 그렸는지 알아보자



김정희(조선/1786~1856) 세한도(종이에 수묵/23x61.2cm/1844년 작/국보 제180호)

이 그림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 화가 김정희의 <세한도>이다. 그림 우측 상단에 적힌 제목의 ‘歲寒(세한)’은 “추운 계절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.”는 《논어》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.

① “추운 계절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.”는 마른 무슨 뜻일까?

② 그림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지 찾아보고, 이 나무들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자

③ <세한도>를 그렸을 때 완당의 개인적인 처지는 어떠했는지 찾아보고, 당시 그의 심정이 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감상문을 써보자